



2009 Global Compact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 Review



- 일 시: 2009년 11월 13일(금) 8:30-18:00
- 장 소: 그랜드 서울 하얏트 호텔 리젠시
- 공동 주최: 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협회
- 주 관: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 참 가: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대표 및 실무진, 학계, 언론, 시민사회 단체 170여명 등



개회 및 1부		
08:30-09:00	등록	전체 참가자
09:00-09:10	환영사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남승우
09:10-09:30	개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Toshio Arima
09:30-09:40	축사	SK 그룹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최태원
09:40-10:00	기조연설: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세계 CSR 동향” UNGC 사무국장 Georg Kell
2부		
10:00-11:00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 활동 현황 및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사무국장 Shusaku Okumura ●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 토론
11:00-11:10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회의 발족 서명식	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 회장
11:10-11:25	휴식	
3부		
11:25-12:30	설립 10주년 된 글로벌 콤팩트의 가치 검토	사회자: 게이오(Keio) 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겸 경영윤리 연구센터 선임연구원장 Mitsuhiro Umez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연구원 Wang Xiaoguang ●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 겸 일본 지속가능포럼 대표이사 Toshihiko Goto ●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
	UNGC 본부의 관점	



12:30-14:00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 2차관 주최 오찬	
4부			
14:10-15:20	유엔글로벌콤팩트와 동북아에서의 CSR	<p>사회: 서울 글로벌콤팩트 연구센터 소장 겸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로차이나 부회장 겸 이사 Li Hualin ● 키코만(Kikkoman) 집행임원, Shozaburo Nakano ● 서스틴베스트 대표 류영재 “동북아 SRI 비교연구” 	
	토론	<p>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이사 겸 아사히 신문 언론교육원 원장 Akio Nomura, 카톨릭 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기찬 외</p>	
15:20-15:30		휴식	
5부			
15:30-16:40	동북아 CSR 커뮤니티를 위한 참여와 협력 방안	<p>사회: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노스틸(Sinosteel) 이사 Li Kejie ● 호세이 글로벌콤팩트 연구소 소장 겸 호세이대학교 법학부 교수 Takashi Ebashi ● 한겨레 경제연구소장 이원재 “동북아에서의 글로벌콤팩트와 기업의 CSR 활동 비교연구” ● 한·중·일 학계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회의 결과보고 	
	토론	<p>후지 제록스 집행임원 Takeshi Hibiya,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노한균 외</p>	
6부			
16:40-17:40	향후 한·중·일 글로벌콤팩트 연례 회의	<p>사회: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Toshio Arima ●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주철기 	
	토론	<p>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 회장 겸 UNGC 국제이사 Chen Ying 외</p>	
17:40-17:50	폐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C 사무국장 Georg Kell ●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남승우 	



Opening Session 1

1) Welcome Remarks

- Nam Seung Woo, President,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Republic of Korea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사회책임 이행과 지속가능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한중일 3국의 괄목할만한 경제, 사회적 발전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과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 금번 회의는 지역적,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적 배경에서 CSR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CSR이 동아시아의 주류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 학계, 다양한 네트워크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필요함.

2) Opening Statement

- Chen Ying, President, Global Compact China Network (UNGC Board)

UNGC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걸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정책 수립을 위한 대화의 참여 및 기업간 경험과 유용한 실천사례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중국의 경우 약 200 여개사가 참여하고 있음.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글로벌 이슈가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업, UNGC 네트워크 등 다양한 주체간의 국제적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 의미에서 금번 한중일 라운드테이블은 매우 역사적인 회의이며,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3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중국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임.

- Toshio Arima, Chairman, Global Compact Board Japan (UNGC Board)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이 CSR 관련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CSR은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문제이며 근본적인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일본 하토야마 총리의 CO2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글로벌컴팩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2002년 창설된 일본 협회는 2007년에 이르러서야 자력 운영이 가능케 되었고, 2008년 4월 기준 회원사 수는 약 100개로 여전히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요구됨. 글로벌컴팩트 동아시아 네트워크 간의 공동체 의식을 통해 글로벌컴팩트의 진정한 가치와 장점을 발전시켜 보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내길 기대함

3) Congratulatory Speech

- Mr. Chey Tae-won, President & Chairman, SK Group, Korea (UNGC Board)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경제의 영향력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전략적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키로 함. 이익을 보면 의로움부터 생각했던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정신은 현대의 자본주의를 보완하고 글로벌컴팩트의 10대 원칙이 아시아 지역에 뿌리내리는데 필요한 최적의 토대를 제공함. 이에 3국 협회는 공동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의 유교정신과 서구의 CSR가치를 접목시킨 "아시아적 CSR 모델"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협력해 나갈 것임. 향후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친환경 성장에 대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며, SK 그룹 또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뢰와 사회통합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4) 기조연설(Keynote Speech): 유엔글로벌콤팩트 세계 CSR 동향(UN Global Compact & CSR Trend in World)

- UNGC 사무국장 Georg Kell

급속히 성장한 한중일 협회의 라운드테이블 설립을 환영하고, 협력을 위한 이러한 플랫폼이 지구적 가치에 기인한 글로벌콤팩트 원칙들이 이웃국가들을 더욱 가깝게 하는 영감있는 사례가 되길 희망함. 세계화에 따라 CSR은 단순한 기업의 자선활동, 위험요소 관리 차원을 넘어 전략적 차원에서 내재화해야 할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도 증시되고 있음. 평화, 빈곤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UN과 성장과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국제 보건, 사회 통합과 안정, 시장 형성,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글로벌 콤팩트가 2000년 창설됨. 지난 10년간 CSR 주요 동향 동향으로는 ESG 이슈가 생존과 성공에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었다는 점과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확산되었다는 점 이외에도 경영과 UNGC 원칙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 증가, ESG 영역에 대한 실천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 증대, 책임투자원칙(PRI) 적용 확대,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등 비즈니스 리더양성 등 학계의 관심 증가, 글로벌 이슈에 관한 책임있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 증진 시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음.

Session 2: Empowering the Global Compact Networks

1. Improve the Professional Level, Enhance Sustainable Development Capacity of Local Network

- Xianfeng Fu, Researcher, Global Compact Japan Network

공·사기업 및 정부가 주요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글로벌콤팩트의 목표 및 기업간, 정부간, 공·사기업 간의 중재자를 포함한 역할을 소개함. 일상 업무 및 운영 능력, 학습 능력, 대외 교류 능력, 정보 수용력 및 전문 자문 업무 등의 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강화하여야 할 5개 역량을 설명함. 협회 내부 관리 강화, 학습 및 교육을 통한 협회 직원의 CSR 전문성 강화, 협회 웹사이트 보강, 관련된 정부 부서 및 사회 단체와의 협력 증진 및 사회적 책임 능력 자문 서비스 적극 보강 등의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접근법 소개함.

2.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Global Compact Japan Network

- Shusaku Okumura, Chief Secretariat, Global Compact Japan Network

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의 구조 및 96개 회원사에 대한 카테고리별 소개 및 지금까지의 협회 활동을 소개함.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 이행을 위하여 협회가 도입한 7개 업무 그룹(공급망 관리,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MDGs 연구, CSR 보고서 연구, 글로벌콤팩트에 대한 내부 인지도, 칸사이 분야)을 소개함. 공급자에 설명, 자체 평가 질문, 감사 및 평가를 거쳐, CSR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우수 이행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시아의 공급망 관리에 대하여 설명함.



3. Empowering the Global Compact Network

- Ju, Chul-Ki, Vice President & Secretary-General,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혁 및 협회 구조와 163개 회원사를 카테고리별로 설명함.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새천년개발목표, 인권과 사회책임투자(SRI) 국제 컨퍼런스, “유엔 글로벌콤팩트 노동기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 “반부패 세계동향과 기업의 과제” 등 현재까지 UNGC 4대 아젠다에 기반한 각종 심포지움 및 COP 작성 교육, CEO 조찬회 등의 협회 활동을 소개함. COP 15 설명회, B4E(Business for the Environment), UNGC 창설 10주년 정상회의 등을 포함한 2010년 사업계획안을 설명함. 협회의 사회적 대화촉진의 플랫폼으로써의 역할, 국내의 UNGC 가치확산 및 한중일 3국 협회 간의 교류 활동을 소개함.

Session 3 : Rethinking Values of Global Compact in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1. Introduction of Global Compact Network China

- Wang Xiaoguang, Vice Director, Global Compact China Network

유엔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는 중국 내 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것을 발판으로 중국 기업들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글로벌콤팩트 중국협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CSR 정책 선정에 참여함. 그리고 기업들에게 CSR을 교육시키고 CSR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며, CSR 보고서 순위를 매겨 우수 보고서를 선정함. 또한 기업의 CSR 전략과 경영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Japan's Experiences & the Future

- Toshihiko Goto, Board Member, Global Compact Board Japan, Chief Executive, Sustainability Forum Japan

일본 사회의 CSR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일본협회의 활동사항, 그리고 미래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함. CSR 거버넌스의 발전에 대해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CSR이 윤리학적인 의미였으나 2000년도에 들어서는 책임의 개념으로 바뀜. 그리고 2010년까지는 기업 거래로써의 CSR이 중요해 질 것이라 예상했으며 미래에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로 자리잡을 것임. 현재 동아시아 CSR의 문제점으로는 정부, NPO, 고용주단체, 무역조합 등과의 유대 관계 &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며 유럽 및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글로벌콤팩트 사회에서 리더십 증대 및 형성이 중요함.

Session 4 : UN Global Compact & CSR in Northeast Asia

1.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Creating a Bright Future Together

- Li Hualin, Vice-president, Secretary of the Board, PetroChina Company Limited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페트로차이나는 중국 내의 유류와 가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업임. 페트로차이나는 항상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해오고 있으며 2007년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했고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사회 발전,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생산과 안전, 기업과 직원들과의 조화를 위해 책임을 다함. 특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적인 혁신, 저탄소 에너지 개발, 이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개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

2. Kikkoman Corporation

- Shozaburo Nakano, Corporate Officer, Kikkoman Corporation

키코만 기업의 CSR 역사와 경영원칙, 그리고 키코만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키코만의 2020 글로벌 비전에 대해 발표하였음. 현재 키코만 기업은 수질 보호를 목표로 하는 네덜란드의 "Water over Wolfsburg" 프로젝트에 2000년 이래로 기부를 하고 있음. 키코만의 2020 글로벌 비전은 세계적인 조미료 회사로 거듭나는 키코만 간장과 음식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하는 영위하게 하고,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함.

3. Comparative Research on the SRI Markets of Three Countries

-서스틴베스트, 류영재 대표

SRI의 세가지 중요 개념은 장기적인 관점, 비재무적 이슈인 ESG와 참여(Engagement)임. 현재 일본은 삼국 중에서 SRI 시장이 가장 크고, 역사 또한 매우 오래됨. 하지만 한국의 SRI 시장은 가장 주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 중국과 일본은 소매 SRI 펀드가 지배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연기금이 SRI 시장에 약 77%를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함. 자본 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사회책임투자가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그리고 3국 국가의 자본시장 기준과 규범이 세계적인 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의 비재무적 이슈들과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함.

Discussion

토론 참가자: 한국의 김기찬 교수, 중국개발은행 대표 Sun Lejun, 일본 키코만 대표 Shozaburo Nakano, 중국 페트로 차이나 Li Hualin

- Sun Lejun, CHINA DEVELOPMENT BANK

중국개발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SR활동에 대해 이야기함. 중국 내 가장 큰 규모의 은행으로서 장기대출, 인프라구축, 산업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이 중국금융계에서 가장 낮음. 금융권, 은행권에서 CSR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CDB는 여러 가지 CSR 활동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출에도 여러 가지 관심을 기울이고, 중소기업교육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국 속담에 하루 만에 방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CSR 활동을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음.



- Shozaburo Nakano, Corporate Officer, Kikkoman Corporation

2003년경부터는 몇몇 CEO들이 CSR을 말하기 시작했고, 2007년쯤에는 사업계가 CSR을 통합 시키고자 했음. "CSR이 당신 회사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으로 일본사업협회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CSR이란 것은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또한 기업가치 및 기업브랜드를 창조하는 방법이라고 대답했음.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이자 기대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높은 수치임. SK 회장이 말했듯이 한중일 삼국은 사업의 전통이 있고 사업에 대한 옳은 가치가 있는 것 같음.

- Prof. Kim Ki-Cha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공존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공동체, UNGC와 같은 기구 모두를 연결시켜야 함. 일부 기업들이 UNGC 가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글로벌 콤팩트가 회사에 도움을 주는지, 회원사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윤리를 지키고 있으며 얼마나 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고 싶어하고, 이러한 노력 즉 CSR을 통해 기업효과와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 하기 때문임. 또한 특정 국가 지표라던가 지역 특화된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구기업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국가는 관습이나 경제적 발전 단계라던가 비즈니스 관행이 다름.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함.

- Li Hualin, Vice-president, Secretary of the Board, PetroChina Company Limited

페트로 차이나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SRI에 투자하고 있고, 5년 동안 400억 위안을 에너지 안전부문에 투자해왔음. 오일 가스 생산과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두고 있음. 천연가스의 세기인 지금 페트로차이나 역시 천연가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천연가스 사용시 28%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임. 중국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7.5% 정도 늘리고 있음.

Session 5 : Engagement & Collaboration of Northeast Asian CSR Community

1. Sinosteel CSR Activities .

- Li Kejie, Secretary of the Board, Sinosteel Co., Ltd

자사의 글로벌 콤팩트 10 대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참여 협력과정을 설명하였음. 철강업계의 CSR 가치 증진을 목표로 전세계적 운영시스템을 마련, 상호 호의적인 글로벌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한 공동번영을 인식하고 있음. CSR 지배구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에서 경제 개발, 생태계 환경 보호, 고령화 사회진출 준비 등 다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CSR 활동을 전개한 시노스틸이 발간한 중국 최초의 해외지속가능보고서에서 자세한 활동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기업의 포용적인 세계경제 대응에 앞서 UN 이 지속 가능경영의 기준을 마련해주고 있어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이 쉬워졌음을 강조함.

2. Potential of CSR and the GC in Japan and Northeast Asia



- Professor Takashi Ebashi, Director, Hosei Research Center for the Support of the Global Compact, Japan/ Professor, Faculty of Law, Hosei University

일본의 CSR 확산 방향에 대해 검토 분석함. 일본기업 사회의 CSR 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관계자들간의 매끄럽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적함.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일본사회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기업가의 폭넓은 대화의 장이 필요함.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2008 년 4 월 재설립된 글로벌 콤팩트 일본협회는 꾸준히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을 관리하며 시민과 기업의 CSR 인식을 높이고 있음. 특히 일본은 동북아의 “Global Compact Family” 구축을 중요시하며 한,중,일 3 국의 협력을 강조함.

3. “Comparative Study of the UNGC/CSR in Northeast Asia”

- Lee Won-Jae, President, Hankyoreh Economic Research Institute, Republic of Korea

중국, 일본, 한국의 CSR 활동을 비교 분석함. 각국의 CSR 발전의 역사적인 배경, 최근 CSR 트렌드, CSR 보고서 출간의 발전과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였음. 중국은 2000년대 초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인해 무역과 인권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CSR 활동으로 시작해, 서서히 영역을 넓히고 있음. 버블경제와 기업스캔들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일본은 세계경제시장을 공략하며 CSR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한국도 8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에 발맞춰 환경, 인권, 반부패 방지를 아우르는 활발한 CSR 활동을 하고 있음.

Discussion

- 후지 제록스 집행임원 Takeshi Hibiya

50 주년을 맞는 후지제록스는 설립 초기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고, 각국 사회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천명의 직원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중국에서는 만명 이상이 근무함. 글로벌콤팩트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후지 제록스는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며, 글로벌 콤팩트의 이념을 일본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세계적으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지는 현재, 역사적으로도 한중일의 문화는 공동의 가치를 지니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전세계적으로 아시아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임.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한국 및 중국과 함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기업지도자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임.

- 국민대학교, 노한균

UN 글로벌 콤팩트는 사회책임을 글로벌의 범용적인 가치로 끌어 올리는 것이며,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임. 오늘 3 국이 모인 이 자리에서 우선 지역 협력의 역할을 생각해야 하고, 3 국 학자들은 모여 첫 번째 프로젝트 연구로 3 국의 CSR 을 연구하기로 했음. 3 국의 협력은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3 단계로 이루어짐. 1. 여러 해석과 실천을 인정하자. 2. 다양성이 존재하는 공통된 가치 발견 3. 이런 공통적인 가치를 글로벌화하자. 또한 협력 시 각국협회가 적극적으로 10 대 원칙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의사소통해야 함.



**Session 6 : Future Annual Conference of Global Compact China-Japan-Korea
Networks**

- Ju, Chul-Ki, Vice President & Secretary-General, Global Compact Korea Network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례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를 갖기로 서약하였고, 내년 회의는 중국 상해에서 Expo 기간 중 개최하기로 함. 한·중·일 학계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년 6월 열리는 정상회의 이전까지 3국의 CSR 관련 설문 조사와, 교수들의 연구주제 제안에 따라 각국이 소관 의제를 연구한 뒤 내년 제 2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진전사항을 발표하기로 했음. 학계의 연구와 각국 연구의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Expert's Roster 형식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나왔음. 또한 많은 기업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혜택과 매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소통을 중요시해야함.

- Toshio Arima, Chairman, Global Compact Board Japan (UNGC Board)

17 세기 에도 시대 상인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3 parties win, win, win, 우리는 business – community-company를 공유하는 데서 많은 것을 배웠음. 일본협회는 150 여개까지 회원사를 늘리고, 안정성과 지속성,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내년 제 2회 모임 때, UNGC 2.0이 무엇이 될지 각자의 구상을 가지고 만날 수 있었으면 함. 신세대들에게 사회적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 Mr. Li Kejie, Secretary of the Board, Sinosteel Co., Ltd.

중국 회사들은 아직 글로벌콤팩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고, 협력과 헌신이 필요함. CSR과 global business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연계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 10대 원칙을 해석, 경영 도구를 개발하여 CSR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칙준수에 대한 방법 연구가 있어야 함. 지역협회들과의 협력 및 성공 사례 공유가 중요함. 오늘 성공적으로 아시아의 지역협회간 CSR확산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설립한 것이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함.

- Georg Kell, Executive Director, UN Global Compact Office

한중일 라운드테이블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고무적이었음. 이에 각국협회의 더욱 심도있는 발전이 중요함. 10대 원칙을 모두가 같은 의미로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작은 회사에서도 성공적이고 완성적인 가치 나눔을 해야 함. 기업이 최고의 메신저라는 점을 확신하며, 3국의 케이스가 앞으로 미래의 좋은 사례로 남고 좋은 영향을 줄 것임.

Conclusion

글로벌콤팩트 한국, 중국, 일본 협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제 1회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는 동북아시아에서 CSR/UNGC 참여의 급증현상을 분석하고, 가치확산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한중일 3국 대표는 금번 라운드테이블에서 서명식을 갖고, 매년 한중일이 돌아가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CSR과 UN Global Compact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글로벌 경제 및 사회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발전에 있어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데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동북아시아의 관점과 한중일의 CSR 경험사례를 발굴해 글로벌 CSR 커뮤니티 및 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 홍보했음.

또한 한·중·일 학계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년 6월 열리는 정상회의 이전까지 3국의 CSR 관련 설문 조사와, 교수들의 연구주제 제안에 따라 각국이 소관 의제를 연구한 뒤 내년 제 2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진전사항을 발표하기로 했음.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한·중·일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은 날로 커질 것이 분명하기에, 금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3국이 처음으로 모여 CSR의 지역 연대를 하고 CSR/UNGC 가치를 확산하기로 한 것은 매우 역사적이고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음. 내년 2010년 8월 상하이에서 제 2회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가 열리기로 결정되었고, 동아시아내 CSR/UNGC 확산을 위해 한층 더 깊어진 연구 및 토의가 열릴 것임. 더불어 이러한 시도가 아시아의 위대한 기업을 창출하고, 더욱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국제사회를 일구어가는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함.